



《타인의 얼굴》  
아베 고보 지음 | 이정희 옮김 | 문예출판사 | 343쪽 | 값 9,800원

# 《타인의 얼굴》 ‘나’와 ‘타자’가 소통하는 근원에 대하여

글\_정윤희 기자

오우삼 감독의 영화 <페이스 오프>(Face Off)를 보면서, 주인공인 니콜라스 케이지와 존 트라볼타가 얼굴을 교체한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얼굴로 바꿀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영화는 충격이었다. 멀쩡히 산 사람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니. 1997년에 국내에 개봉된 <페이스 오프>를 그 해에 봤다. 10년이 흘러 아베 고보가 지은 《타인의 얼굴》을 읽었다. 《타인의 얼굴》을 읽은 오우삼 감독이 모티프를 얻어 <페이스 오프>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실종’에 관해 쓴 아베 고보의 대표작 《모래의 여자》를 읽는 중에도 입 속의 혀가 타 털어내지 못한 모래알들로 연신 침을 삼켰던 기억은 여태 지워지지 않았다. 《타인의 얼굴》을 읽는 중에도 화학약품 폭발로 얼굴이 켈로이드 흉터로 흉측스럽게 변해버린 ‘거머리 소굴’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도 내 얼굴이 근질근질했다.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 ‘나’는 실험실 액체질소 폭발로 얼굴을 잃는다. 그는 인간의 피부와 똑같은 가면을 만들어 타인의 얼굴을 쓰고, 자기 아내를 유혹한다. 아내가 타인의 얼굴에 유혹 당하자 그가면에 질투를 느끼게 되고, 가면에 몸을 허용한 아내를 단죄하기로 결심한다. 이 소설은 ‘검은색 노트, 흰색 노트, 회색 노트’처럼 노트 형식을 빌려 수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타인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다.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대로 ‘나’라는 존재의 모양이 결정된다. 만약 내 얼굴이 상실된다면, 인간의 몸뚱어리 중에서 ‘얼굴’이 내가 타자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일까. 소설에서는 얼굴이 나와 타자의 진정한 소통의 근원인가에 대해서 진중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서 얼굴 따위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와, “얼굴의 손상은 단순히 형태상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위생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면을 만들어주는 ‘K’의 생각은 참으로 대조적이다. K는 얼굴의 상실이 정신위생학적인 영역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영혼은 피부에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주인공이 거듭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만이 과연 유일무이한 통로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Yes인가, No인가. 아베 고보가 이 소설을 쓴 시기는 1960년대이다. 한창 산업화가 진전되는 시기다. 산업화 이후 ‘얼굴’ 더 나아가 ‘몸’은 기호로 작용한다.

아베 고보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주인공 ‘나’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한다.

“자기 기호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기호로부터 도망치는 자유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중략) 나 역시 타인의 얼굴에 걸맞은 타인의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자신의 기호를 짓밟으면서 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표정”이라고 한다면, 타인이 원하는 대로 표정을 지어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얼굴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모두 타인의 가면을 쓴 ‘타인의 얼굴’이다. **한문**